

국별 리포트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238천km ²	G D P	1,597억 달러 (2009년도)
인구	21.28 백만명 (2009년도)	1 인 당 GDP	7,427 달러(2009년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가미)	통화단위	Lei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3.05 (2009년도)

- 루마니아는 유럽 동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몰도바,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접국인 헝가리, 불가리아, 세르비아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루마니아의 NATO 가입 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아 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등으로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몰도바와는 루마니아의 내정간섭으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대선에서 중도우파인 민주자유당(DLP) 소속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의회의 불신임 발의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같은 당 소속 에밀 보크가 신임 총리로 재신임을 받게 됨. 민주자유당 정부는 민주헝가리연합(HUDR)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루마니아는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에 성공함에 따라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년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음.
- 2012년 ERM-II 도입 및 2014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추진 중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7.9	6.2	7.1	-8.5	-1.2
재정수지/GDP	-1.4	-3.1	-4.9	-7.3	-6.9
소비자물가상승률	6.6	4.8	7.9	6.3	7.9

자료: IMF.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1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시현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주요 공산품(자동차, 금속제품)의 생산 감소 및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가뭄의 해갈에 따른 농업생산량 증가, 가계소비 및 고정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연중 경제성장률은 7.1%를 기록함.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어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0년에는 루마니아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이후 6~7%대 기록

- 2009년에는 농작물의 양호한 작황,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된 6.3%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루마니아 통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방안으로서의 부가가치세 인상(19%→24%,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조치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의 6.3%에서 7.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 임금 인상,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관리 어려움 예상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3.1%를 기록한데 이어 2008년에는 총선 관련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4.9%로 확대됨.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수당 지출 증가 등의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및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7.3%로 확대되었음. 2010년에는 EU 및 IMF의 긴축재정정책 운영 권고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 삭감, 조세제도 개혁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6.9%를 기록할 전망이다.
- 루마니아 정부는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권고한 3% 재정적자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2. 경제 구조·정책

□ 경제 구조조정 부진

- 1990년대 이후 루마니아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속, 제조업 기술력 육성 실패 등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산업별 GDP 구성(2009): 서비스업 52.6%, 제조업 35%, 농림수산업 12.4%

- 특히 루마니아 경제의 제조업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내소비 감소로 국내외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외 수요감소로 인해 프랑스 르노도 2008년 Dacia 소재 자동차 공장의 조업을 일시 중단함.

□ 2010년 이후 통화가치가 점진적 안정추세 시현

- 루마니아 통화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치변동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2009년 2월에는 사상 최저인 달러대비 3.4레이, 유로대비 4.3레이를 기록하였음. 2009년 말 기준으로 통화가치는 달러대비 3.1레이, 유로대비 4.2레이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들어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추세임.

* 달러 대비 레이화(평균): 2.44('07) → 2.52('08) → 3.08('09) → 3.01('10.7)

* 유로 대비 레이화(평균): 3.34('07) → 3.70('08) → 4.21('09) → 4.09('10.7)

□ 기업 경영여건 평가순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 경영여건 평가에서 루마니아는 2009년 45/183에서 2010년 55/183으로 평가되어 기업 경영여건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사업등록 절차, 투자자 보호제도 및 법규 등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순위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나 여전히 상위권 평가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8년 FDI 유입액은 134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액의 54%를 보전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2009년 중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한 6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2009년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여, 동 FDI 유입액은 경상수지 적자의 81%에 상당함. 2010년 FDI 유입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연중 FDI 유입: 114억 달러('06) → 94억 달러('07) → 134억 달러('08)
→ 68억 달러('09)

□ 2010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수준 미달 예상

- 루마니아 정부는 경상수지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확대 재정정책 및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정책 대응에 실패한 결과 2008년 GDP 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냄.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었으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확대되었음.
- 루마니아 의회는 2010년 1월 15일 찬성 192표, 반대 138표로 2010년 예산안을 승인하였음. 동 예산안은 정부수입 GDP 대비 31.8%, 정부지출 GDP 대비 37.7%를 전제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5.9% 이내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에 의해 2010년 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목표치에 미달한 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 구제금융 합의로 경제위기 진정

- 루마니아는 2009년 3월말 IMF 등과 20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음.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2008년 10월 이후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에 이어 동유럽 국가 중 다섯 번째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되었으며, 기관별 총 지원예정 금액은 IMF 130억 유로, EU 50억 유로, 세계은행 15억 유로, 기타 금융기관 5억 유로임.
- * 2010년 9월 말 기준 IMF는 다섯 차례에 걸쳐 101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루마니아 정부 앞으로 집행함.
- IMF 대기성차관 지원조건은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지원조건 충족을 위해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19%→24%) 등의 강도 높은 긴축안을 시행함.
- 구제금융 협정 체결로 루마니아는 IMF로부터의 재정지출 축소 요구 등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구제금융 지원은 2009년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안

정 및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 8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총 4.0% 포인트 인하

- 2007년 10월 긴축통화정책 기조 전환 이후 루마니아 통화당국은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IMF는 민간부문 외화 차입 증가로 인한 신용팽창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2월 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0월 현재 기준금리를 6.2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기준금리 변화: 7.5%('07.11) → 10.25%('08.8) → 10.0%('09.2) → 7.5%('10.1) → 7.0%('10.2) → 6.5%('10.3) → 6.25%('10.5)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12,785	-23,080	-23,719	-7,139	-8,584
경 상 수 지 / G D P	-10.4	-13.9	-12.6	-5.5	-5.6
상 품 수 지	-14,836	-24,566	-28,182	-9,434	-9,818
수 출	32,336	40,555	49,760	40,597	47,136
수 입	47,172	65,121	77,942	50,031	56,954
외 환 보 유 액	28,066	37,194	36,747	40,757	48,747
총 외 채 잔 액	55,114	76,300	97,807	113,793	115,6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4.9	46.0	49.9	67.7	70.8
D S R	17.9	18.6	24.5	29.9	27.7

자료: IMF.

□ 2010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수준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 발생으로 GDP

대비 12.6%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가 경상수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GDP 대비 적자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내수경기 회복에 의한 수입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액의 8.7개월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 2009년 상반기에는 통화(Lei)가치 방어를 위해 루마니아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외환보유액은 증가추세를 나타냄.

* 외환보유액: 367억 달러('08.12월 말) → 408억 달러('09.12월 말)
→ 487억 달러('10.12월 말 전망치)

-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4.4개월분에서 2009년 말 7.6개월분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IMF 구제금융 지원에 기인함. 2010년에는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및 IMF 구제금융 추가 집행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여 연말 기준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8.7개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부문의 외화차입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에 달하는 수준

- 2005년 자본거래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급증하여 2006년 이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130%를 초과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를 상회함. 2010년에는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19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의 GDP 대비 공적채무 규모는 2008년 14.7%, 2009년 21.6% 수준임.

□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부담 완화

- 2009년 초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의 투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며 루마니아의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동년 2월을 저점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어 외채상환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

- D.S.R.이 2008년 말 24.5%에서 2009년 말 29.9%로 상승하여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9년 총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임.

* D.S.R.: 24.5%('08) → 29.9%('09) → 27.7%('10)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83.5%('07) → 87.0%('08) → 67.0%('09)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민주자유당(DLP, 중도우파) 정부, 민주형가리연합(HUDR)과 연정 구성

- 2009년 10월 제2야당인 자유당(PNL)은 민주자유당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2009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민주자유당 소속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이 동월 재차 에밀 보크 총리를 차기 정부의 총리로 지명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민주자유당 정부가 재신임을 받게 됨.

- 새로운 정부는 2009년 12월 23일 민주형가리연합(HUDR) 등 소수민족 대표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찬성 276, 반대 135, 기권 66표로 승인을 받았음.

□ 루마니아 정부의 개각 단행에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 지속

-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3월에 맺은 IMF 구제금융 협정의 조건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임금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강도 높은 긴축안을 시행함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였음.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은 2009년 12월 6일 결선투표 당시 50.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2010년 9월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13%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9월 3일 에밀 보크 총리는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 회복을 통한 안

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재무장관을 포함한 총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정부 개각을 단행하였음. 그러나 9월 24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 인해 현재 민주자유당 내에서도 에밀 보크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은 에밀 보크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은 다소 높은 수준이나 사회불안 가능성 낮음

-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하였음. 2010년 3월 8.4%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7월 7.4%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4%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실업률: 4.0%('08.9) → 5.6%('09.3) → 6.9%('09.9) → 8.4%('10.3)
→ 7.4%('10.7)

- 그러나 7%대의 실업률 수준은 2010년 7월 기준 EU 평균 실업률인 9.1%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루마니아 정부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수준은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 상승에 따른 대규모 사회불안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 근로자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루마니아 정부는 IMF와 합의한 2010년도 재정적자 목표치인 6.8%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7월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공공부문 노조와의 마찰이 야기됨. 또 루마니아 정부는 대규모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부문 근로자의 불만이 표출됨.
- 2010년 9월 24일 부카레스트에서는 경찰공무원 수백명을 포함한 약 6천명의 루마니아 공무원들이 임금삭감 및 인력감축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와 공공부문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됨. 공무원 대 규모 시위 이후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거부하고 IMF 구제금융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긴축안을 예정대로 단행할 계획임을 밝혀 정부와 공공부문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3. 국제관계

□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2004년 5월 NATO 가입 및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주요 외교정책 기 조는 동 체제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8월 러시아의 그루 지야 내 압하지와 및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러 시아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NATO 및 EU 대응에 동조함.

* 2004년 NATO 가입, 2007년 EU 가입에 이어 현재 유로존 가입을 추진 하고 있음.

- 인접국인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는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몇 안 되는 코소보 독립('08년 2월) 미승인 국가임.

□ 러시아 및 몰도바와는 긴장관계 지속

- 러시아와는 NATO 가입 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 마니아 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쟁상 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몰도바와는 루마니아의 잦은 내정간섭으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양국간 관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몰도바는 19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 국민의 6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VI.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0. 10)	C1	(2010. 2)
OECD	4등급	(2010. 1)	4등급	(2009. 4)
S&P	BB+	(2010. 3)	BB+	(2008. 10)
Moody's	Baa3	(2010. 7)	Baa3	(2006. 10)
Fitch	BB+	(2010.2)	BB+	(2008.11)
I.C.R.G	98/140	(2010.8)	91/140	(2009.8)
Euromoney	68/186	(2010.3)	65/186	(2009.9)
I.I.	66/178	(2009.9)	66/177	(2009.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상업은행 지급보증부 전액인수가능
-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3. 외채상환태도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 리스케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후 채무 구조 개선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10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4.7억 달러, 중장기 57.5억 달러로 총 62.2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070만 달러로 전체의 0.17%에 불과하여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이후 현 수준의 등급 유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루마니아에 대하여 주요 평가기관들은 정부채권 등급을 하향조정함. 2008년 10월, 11월 S&P 및 Fitch가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S&P: BBB→BB+, Fitch: BBB→BB+)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등급이 유지됨.

○ 2009년 4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하락, 외채구조의 악화 등과 더불어 IMF 구제금융에 따른 지원조건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함. 그러나 동 조정 이후 추가적인 등급조정은 발생하지 않음.

* OECD: 5등급('03.1) → 4등급('04.1) → 3등급('07.1) → 4등급('09.4) → 4등급('10.1)

* Moody's: Ba3('03.12) → Ba1('05.3) → Baa3('06.10) → Baa3('10.7)

* S&P: BB('03.9) → BB+('04.9) → BBB-('05.9) → BB+('08.10) → BB+('10.3)

* Fitch: BB('03.12) → BBB-('04.11) → BBB('06.8) → BB+('08.11) → BB+('10.2)

* ICRG: 114/140(2008.10) → 91/140(2009.8) → 98/140(2010.8)

* Euromoney: 61/186(2009.3) → 65/186(2009.9) → 68/186(2010.3)

* I.I.: 63/177(2008.9) → 66/177(2009.3) → 66/178(2009.9)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우리나라의 대 루마니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854,813	720,587	387,13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 통신기기, 철강판
수 입	79,349	207,091	154,941	기계류(부품), 목재류, 의류

□ 국교수립: 1990년 3월 30일(북한과는 1948년 11월 3일)

- 양국간 수교 역사는 짧은 편이나, 경제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문화, 항공 운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진전되고 있음.

* 한국-루마니아 주요 협정체결 현황

: 경제과학기술협정(1990), 투자보장협정(1990), 문화협정(1991), 이중과세 방지협정(1993), 항공운송협정(1994), 원자력협력협정(2004), 경제과학기술협정(개정, 2005)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대 루마니아 수출, 수입 감소

- 1990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교역규모는 5.4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2009년 말 기준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74위 수출대상국, 63위 수입대상국임.

*대 루마니아 수출: 8.5억 달러('07) → 7.2억 달러('08) → 3.9억 달러('09)

*대 루마니아 수입: 0.8억 달러('07) → 2억 달러('08) → 1.5억 달러('09)

* 주요 수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 주요 수입품: 기계류(부품), 목재류, 의류

□ 해외직접투자 현황(2010년 6월말): 총 25건, 4.2억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의 대 루마니아 직접투자실적은 2010년 6월 말 누계기준으로 25건, 4.2억 달러이며 2007~09년 연도별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390만 달러, 2008년 1.3억 달러, 2009년 70만 달러를 기록함.

V. 종합의견

- 루마니아는 2009년 3월 IMF, EU 등과 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협정을 체결한 이후 IMF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1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고, 2010년 들어 총수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대외거래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루마니아 외환보유액은 2008

년 말 기준 367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의 4.4개월분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말에는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7.6개월 수준으로 증가함. 2010년에는 IMF의 추가 자금집행 및 총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연말 기준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8.7개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 정부는 IMF 구제금융 차관 지원조건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임금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 등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급락함. 2010년 9월 3일 정부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 루마니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음. 그러나 IMF 등과의 구제금융 지원 협정 체결 및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정책 시행 등으로 루마니아 경제는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은 2009년 초 이후 조정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조사역 최 희 정 (☎02-3779-6676)

E-mail : heej_choi@koreaexim.go.kr